



‘아태 마스터스 화이팅’ 12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송하진 도지사,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김광호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회장,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 각계 인사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유도회, 왕기춘 유도계 영구제명

유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유도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해은)를 열고 왕기춘에게 영구제명과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왕기춘은 유도계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대한유도회는 수사 진행 결과에 관계없이 왕기춘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중징계를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정위원 8명은 왕기춘의 영구 제명에 뜻을 함께 했다. 김해은 위원장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혐의인만큼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영구제명이라는 수위에 대해 “유도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으로 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기춘은 제3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대 시절부터 최고 유망주로 각광받던 왕기춘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73kg급 은메달 획득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뉴시스

이태원發 집단감염에 K리그 ‘한숨’

단계적 관중 입장 플랜 세웠으나 원점으로 돌아가... 구단 관계자 “유관중 전환 희망 멀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고 개막한 프로축구 K리그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로 무관중 경기 기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프로축구는 지난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하나원큐 K리그 2020 1라운드 개막전을 시작으로 7개월의 대장정에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전 세계 36개국 K리그 개막 경기를 지켜봤다. 성공적인 리그 개막에 일부 구단에선 예상보다 빨리 단계적 관중 입장이 가능할 거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실제 정부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프로스포츠의 관객 입장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당분간 유관중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01명으로 이 중 서울 소재 확진 환자는 64명으로 밝혀졌다.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한 7일 이후 6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결국 교육부도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등교 개학을 일주일씩 연기했다. 1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소화한 K리그에도 탄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단계적인 관중 입장 플랜을 세웠지만,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한 K리그 구단 관계자는 “무관중 개막 후 잘 운영되면 이른 시일 내 유관중 전환을 할 거란 희망이 있었는데,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다시 그 희망이 멀어졌다”며 안타까워했다. 관중 수익이 구단 재정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 K리그2 관계자도 “유관중 전환 시기는 개학이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개학이 또 미뤄지면서 무관중 경기가 더 길어지게 됐다”고 답했다. 이종권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일단 확진자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동시에 정부의 방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막을 앞두고 22개 구단 선수단과 코치진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또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쳐 선수단 전체 전수 검사를 했고, 1명의 확진자가 없는 상태에서 리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며 “각 팀에서 발열 체크와 증상 확인 등을 점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KLPGA, MDF 방식 상금 제도 적용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제42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30억원)을 개최하는 가운데 상금 제도를 손질해 눈길을 끌고 있다. KLPGA 투어 최초로 적용하는 MDF(Made cut, Did not Finish) 방식을 통해 출전 선수 전원이 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PGA투어의 일부 대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적용될 MDF 방식은 예선 통과, 즉 ‘컷’이라는 개념이 없다. 1. 2라운드 성적에 따라 공동 102위까지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지만, 공동 102위 밖으로 밀린 선수에게도 상금은 지급된다. 출전 선수 전원이 컷을 통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라운드 진출자 중 공동 70위까지가 최종 라운드에 나서게 되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 역시 본인의 순위에 해당하는 상금을 받게 된다. /뉴시스

국민 10명 중 6명, 운동 중 부상 경험

일반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운동 중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이 공개한 2019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4.3%가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부상 경험률이 높은 종목은 농구(85.2%), 축구(84.9%), 야구/소프트볼(83.0%), 족구(81.8%), 스키/스노우보드(80.1%) 순이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발목(38.1%), 무릎(20.5%), 손가락(11.1%)이었으며, 부상 종류는 염좌(53.9%), 좌상(타박상)(29.9%), 활과상(긁힘)(27.9%)으로 조사됐다. 부상에 따른 치료 기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2.2%가 1주일 정도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전체 인구 중 종목별 생활 스포츠 인구 및 부상 경험자 비율 파악을 위한 ‘생활 스포츠 안전사고 인식조사(만 19세 이상 3000명 대상)’와 부상 경험자의 세부 특성 파악을 위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부상을 경험한 생활체육인 7725명+전문체육인 4020명)’ 2단계로 실시됐다. /뉴시스

지난 1년간 부상 경험 분석 결과 생활체육인과 전문체육인 모두 1~3회 부상 경험에 집중됐으나 평균적으로 생활체육인은 2.7회 전문체육인은 5.0회로 전문체육인이 생활체육인보다 부상 경험률이 1.8배 높았다. 부상 횟수가 많은 상위 종목 분석 결과 생활체육인은 ‘핸드볼’, ‘태권도’, ‘축구’, ‘수영’ 순이며 전문체육인은 ‘펜싱’, ‘양궁’, ‘스키/스노우보드’ 순이었다.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생활체육인과 전문체육인 모두 ‘무리한 동작’이 가장 큰 부상 원인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동작 외에 생활체육인은 ‘미끄러져 넘어짐’, 전문체육인은 ‘사람과 충돌’이 두 번째 원인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인 중에서는 부상 발생자의 절반 이상(58.7%)이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를 했다. 의사 진료 및 치료(31.2%),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0.2%)는 뒤로 밀렸다. 전문체육인은 생활체육인과 부상 치료 경향이 달랐다. 61.4%가 의사 진료 및 치료에 임했다. /뉴시스

농구·축구·야구·족구가 1~4위 차지
주요 부상 부위는 발목·무릎·손가락 순
‘무리한 동작’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